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l076@kiwoom.com



키움증권

미 증시, 레벨 부담, ISM 제조업 PMI, 중동 불확실성 등으로 약세

미국 증시 리뷰

30일(월), 1일(화) 미국 증시는 파월 연준 의장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며 상승했으나,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및 항만 파업 영향으로 기술주 중심의 약세로 마감(2거래일 누적, 다우 -0.37%, S&P500 -0.51%, 나스닥 -1.15%)

미국 공급관리협회(ISM)에서 발표한 지난 9월 제조업 구매자 지수(PMI)는 47.2를 기록하며 컨센서스(47.6)를 하회, 6개월 연속 제조업 활 위축 국면 지속. 다만, 하위 지수 중에선 신규 수주 지수가 전월 44.6 → 46.1, 생산지수는 전월 44.8 → 49.8로 상승. 고용 지수는 전월 46.0 → 43.9, 가격지수는 전월 54.0 → 48.3으로 하락. 집계측에 따르면, 통화정책과 미 대선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이 자본과 재고에 대한 투자를 꺼리면서 수요는 여전히 부진한 상태라고 언급.

노동부에서 발표한 8월 구인/이직 보고서(JOLTS)에서의 기준 구인 건수는 계절조정 기준 804만 건을 기록하며 전월치(771만 건)를 상회. 한편, 구인 비율은 4.8%를 기록하며 전월치(4.6%) 대비 개선. 8월 채용 건수는 531.7만 건으로 전월치(541.6만 건)를 하회. 전체 퇴직 비율은 3.1%를 기록하며 전월치(3.4%)를 하회. 전반적으로 지난 수치 대비 고용 여건이 소폭 개선되는 모습.

또한, 이란은 이스라엘을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대규모 발사했다는 소식에 미 증시는 큰 폭의 변동성 장세를 시현. 이란은 지난 4월 이스라엘 본토를 공습한지 5개월여 만에 재차 보복성 공격을 시도. 이에 이스라엘 또한 이란에 재보복을 경고하며 중동 전쟁 리스크가 점증하는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차 불거지며 전일 VIX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5% 이상 급등하며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반영 중.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국내 휴장 기간 포함 2거래일간 미국 증시에서 주목할만한 이슈는 파월의장 발언, 메인 경제지표, 중동 리스크였으며, 각 이벤트간 혼재된 결과들이 주식시장에서는 고점 부담과 맞물리면서 차익실현의 명분을 제공했던 것으로 판단.

우선 파월 의장은 금리를 내리는 데 있어서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시장이 기대하는 추가 빅컷(50bp)에 선을 그은 모습(파월 발언 이후 Fed Watch 상 11월 50bp 인하 확률은 53%대에서 34%대로 하락). 또 고용시장의 과열이 식기는 했지만, 여전히 견조하며, 경기 하강 리스크도 크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 결국 향후 연준의 금리인하 폭이나, 연준의 정책 대응이 선제적 or 사후적인지는 데이터에 달려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부분.

그 가운데, 9월 ISM 제조업 PMI는 47.2pt로 전월(47.2pt)과 동일했으나, 컨센(47.6pt)은 하회한 상황. 다만, 세부적인 항목들을 살펴보면, 8월초, 9월초처럼 침체 불안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음. 일례로, 고용(8월 46.0 → 9월 43.9)이 급감했지만, 신규주문(44.6 → 46.1), 생산(44.8 → 49.8)은 큰 폭 개선된 상태.

더 나아가, 전세계 반도체 매출 포함 전방 수요에 선행 역할을 하는 신규주문-재고 스프레드가 8월 -5.7pt에서 +2.2pt로 반등했다는 점도 긍정 요인. 이는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전방수요와 기업이익 둔화 사이클이 완만하게 진행될 것임을 시사. 또 ISM 제조업 내 고용은 급감했으나, 8월 JOLTS 보고서 상 구인건수(804만건 vs 컨센 764만건)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향후 고용 둔화의 강도는 주식시장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 이번 ISM 제조업 PMI, JOLTS의 구인건수는 엇갈린 수치를 기록한 만큼, 방향성 베팅을 원하는 시장 입장에서는 주저하게 만드는 이벤트였던 것으로 판단. 결국 10월 중 침체 내러티브가 확산될 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은 5일(금) 예정된 9월 비농업 고용에 달려있을 전망.

물론 전일 미국 증시 급락이 다른 이유가 아닌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른 양국간 전면전 가능성 등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지적도 있음. 일정부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중동발 리스크가 증시에 큰 악재가 되기 위해서는 유가 폭등이 출현하면서 연준의 금리인하 사이클이 중단되어야 하는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함.

우선 유가가 3.8%대 급등한 70.75달러대를 기록한 가운데, 이스라엘 측이 인명 피해가 없다면서도 여전히 양방 간 추가 공격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황. 그러나 2023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WTI 80불대 중반), 2024년 4월 이스라엘-이란 간 미사일 공격(WTI 80불대 초반)에 비해 절대적인 유가 레벨이 낮기에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는 높지 않아 보임. 따라서, 이스라엘-이란 간 전면전 확대 및 미국의 개입 등 지정학적으로 예측해볼 수 있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는 이상, 이번 중동발 리스크가 만들어 내는 주식시장의 하방 위험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지난 월요일 국내 증시는 장 초반 상승출발 했으나, 이후 연휴로 인한 거래 부진 속 중화권 증시 폭등에 따른 여타 아시아 국가에서의 자금 이탈 등 수급 혼란, 엔-캐리 청산 노이즈 등으로 급락(코스피 -2.1%, 코스닥 -1.4%).

금일에는 미국 ISM 제조업 PMI와 JOLTS의 혼재된 결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2.8%), 중동발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국내 휴장기간 대외 이슈를 반영하면서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이나, 9월 수출 및 ISM 신규주문 개선, 낙폭 과대 인식 등으로 하방은 제한되는 흐름을 연출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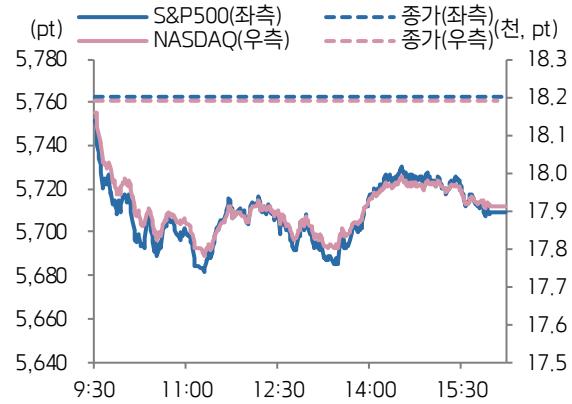
또 수급 측면에서는 인민은행의 대규모 부양책 발 중화권 증시의 폭등은 국내 증시에서 이들 증시로, 국내 업종에서도 중국 관련주로 자금 쏠림 현상을 초래했으나, 중국이 7일(월)까지 휴장인 만큼, 금일 국내 전반적인 외국인 수급이나 업종 별 수급에서 되돌림이 발생할 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한편, 국내 증시가 9월에 상대적으로 여타 증시에 비해 주가 탄력이 크지 않았던 점은 이익 불확실성에서 기인. 9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의 12개월 영업이익 전망치는 9월 초 327조원에서 319조원으로 약 8조원 급감했으며, 이는 반도체(-6.6조원 감소)를 중심으로 자동차(-170억원), 화학(-1,700억원), 화장품(-1,870억원) 등 주력 수출 업종들의 이익 전망 둔화에서 기인.

이는 차주 삼성전자부터 시작되는 3분기 실적시즌에 대한 자신감 부족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 여기서 10월 1일 발표된 한국의 9월 수출이 +7.5%(YoY, 8월 +11.2%)로 컨센서스(+6.6%)를 상회했다는 점이 하나의 위안거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일평균 수출(8월 13.6% → 9월 12.9%) 역시 둔화 강도가 크지 않았으며, 한국 수출에 선행하는 미국의 ISM 신규주문도 반등했다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필요.

그러나 반도체(8월 +38.8% → 9월 +37.1%), 자동차(-4.3% → +4.9%), 선박(+80.0% → +76.2%) 등은 호전된 반면 이차전지(-4.5% → -11.8%), 바이오헬스(+38.9% → +9.9%) 등은 부진하는 등 품목별로 상이할 결과를 기록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 3분기 실적시즌을 앞둔 현 시점에서, 이 같은 엇갈린 수출 실적과 애널리스트들의 프리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이익 전망 변화에 따라, 금주 남은 기간에도 주가 상으로 업종 간 차별화될 흐름을 보일 것으로 판단.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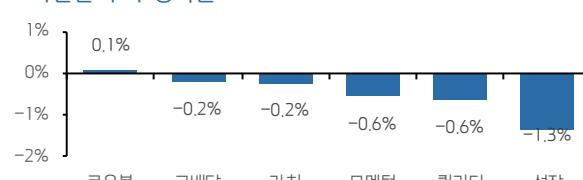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기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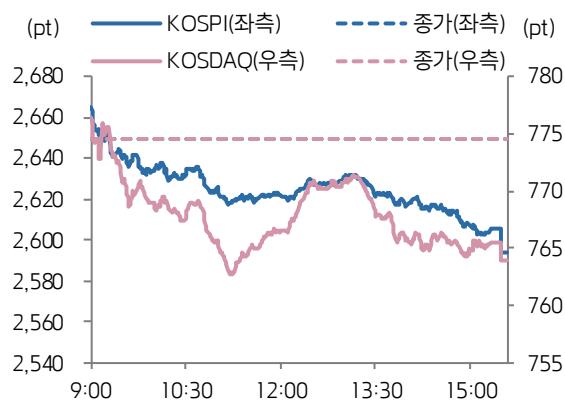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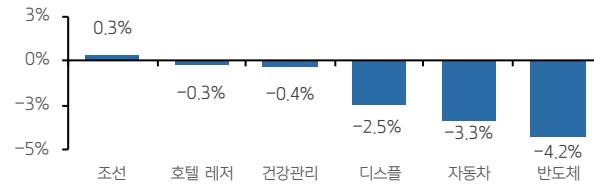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기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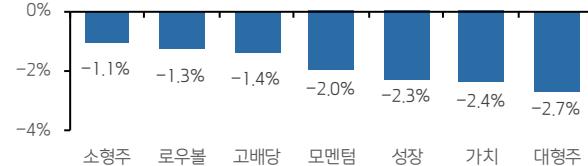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226.21	-2.91%	+17.94%	GM	44.88	+0.09%	+25.96%
마이크로소프트	420.69	-2.23%	+12.49%	일라이릴리	884.48	-0.16%	+52.47%
알파벳	166.99	+0.69%	+19.84%	월마트	81.27	+0.64%	+56.16%
메타	576.47	+0.7%	+63.35%	JP모건	207.04	-1.81%	+23.86%
아마존	185.13	-0.64%	+21.84%	엑손모빌	119.93	+2.31%	+23.03%
테슬라	258.02	-1.38%	+3.84%	세브론	149.70	+1.65%	+3.63%
엔비디아	117.00	-3.66%	+136.31%	제너럴일렉트릭	81.27	+0.6%	+56.2%
브로드컴	167.47	-2.92%	+51.64%	캐터필러	392.39	+0.32%	+34.36%
AMD	159.75	-2.64%	+8.37%	보잉	154.22	+1.43%	-40.83%
마이크론	100.31	-3.28%	+17.76%	넥스트에라	85.27	+0.9%	+43.5%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2,593.27	-2.13%	-2.34%	USD/KRW	1,316.80	+0.51%	+2.24%
코스피200	344.76	-2.59%	-3.7%	달러 지수	101.19	+0.41%	-0.14%
코스닥	763.88	-1.37%	-11.85%	EUR/USD	1.11	-0.6%	+0.26%
코스닥150	1,288.34	-1.49%	-7.54%	USD/CNH	7.03	+0.33%	-1.34%
S&P500	5,708.75	-0.93%	+19.68%	USD/JPY	143.57	-0.04%	+1.79%
NASDAQ	17,910.36	-1.53%	+19.31%	채권시장		가격	DTD(bp)
다우	42,156.97	-0.41%	+11.85%	국고채 3년	2,805	-1.5bp	-34bp
VIX	19.26	+15.12%	+54.7%	국고채 10년	2,992	-0.5bp	-18.3bp
러셀2000	2,197.03	-1.48%	+8.38%	미국 국채 2년	3,604	-3.7bp	-64.6bp
필라. 반도체	5,024.94	-2.86%	+20.34%	미국 국채 10년	3,732	-4.9bp	-14.8bp
다우 운송	16,103.86	-1.17%	+1.29%	미국 국채 30년	4,072	-4.8bp	+4.3bp
상해증합	3,336.50	+8.06%	+12.15%	독일 국채 10년	2,036	-8.7bp	+1.2bp
항셍 H	7,509.79	+2.88%	+30.19%	원자재 시장		가격	DTD(%)
인도 SENSEX	84,266.29	-0.04%	+16.65%	WTI	69.83	+2.44%	-1.16%
유럽, ETFs	가격	DTD(%)	YTD(%)	브렌트유	73.56	+2.49%	-4.52%
Eurostoxx50	4,954.15	-0.93%	+9.57%	금	2,690.30	+1.16%	+24.55%
MSCI 전세계 지수	845.87	-0.69%	+16.35%	은	31.74	+0.9%	+31.79%
MSCI DM 지수	3,693.50	-0.79%	+16.54%	구리	458.90	+0.79%	+17.95%
MSCI EM 지수	1,172.59	+0.15%	+14.54%	BDI	2,084.00	-1.23%	-0.48%
MSCI 한국 ETF	63.48	-0.75%	-3.13%	옥수수	429.00	+1%	-14.8%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밀	599.00	+2.57%	-10.46%
비트코인	60,786.63	-4.7%	+43%	대두	1,057.25	+0.02%	-15.13%
이더리움	2,451.26	-6.21%	+7.4%	커피	264.15	-2.26%	+40.28%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9월 30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다.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짓게 됩니다.